

어등산 관광개발 3차 공모 서진건설만 참여

광주시, 평가심의위 평가 거쳐 우선협상대상자 여부 결정
업체 15곳서 설명회 했지만 상업용지 협소 이유 부정적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사업자 3차 공모에 1개 업체가 단독 응모했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마감된 어등산 관광단지 민간사업자 공모에 광주지역 중견건설업체인 (주)서진건설이 단독으로 광주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1995년 설립된 서진건설은 토목건축 및 조경공사에 주력해 왔으며, 광주·전남 지역에 엘리체 브랜드의 아파트를 짓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3월 공모 공고를 낼 때부터 관심을 보인 업체 15곳을 방문해 사업 설명회를 열었지만 대부분 업체가 '상업용지가 너무 협소해 사업성이 낮다'며 참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이번 공모에서 상업용지의 면적을 지역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2만4170㎡ 이하로 제한했다. 하지만 민간 사업자를 유치하기 위해 토지가격에 따른 점수 비중을 줄이고 상가시설의 건폐율을 완화

하는 등의 사업성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광주시는 서류 검토 등 사전 평가를 거쳐 전문가 등으로 된 평가심의위원회 평가를 통해 오는 7월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협상 적격자로 선정되기 위해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심의위원회 평가에서 총점 1000점 가운데 850점 이상을 얻어야한다.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군부대 포사격장으로 황폐화한 어등산일원 41만7531㎡ 부지에 유원지 등 놀이시설, 휴양시설, 호텔, 골프장, 공원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지난 2006년 첫 삽을 뜬 이후 10년이 넘도록 골프장 조성 이외에는 진척이

없는 상태다. 광주시는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3차 공모 공고에서 개발 목적으로 ▲광주의 정체성에 걸맞은 관광단지로 조성 ▲우리 지역의 부족한 관광인프라 확충과 관광산업 활성화 기여 ▲친환경적인 관광단지 개발 및 시민 휴식공간 조성을 제시했다. 공모 공고 개발계획에서 5성급 호텔(특1등급) 150실 이상 의무설치 및 휴양문화시설·운동오락시설·공공편의시설의 조성 면적 합은 21만㎡ 이상으로 제시했다. 우선협상자 선정 이후 절차는 사업 시행자인 광주도시공사 주관으로 이뤄진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구제역 백신접종 안하면
살처분 보상금 못받는다

7월부터 구제역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전남 축산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 살처분보상금을 한 톨도 받지 못하게 되는 등 불이익이 강화된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살처분보상금 감액과 과태료 상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이 개정돼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구제역이 발생해 가축을 살처분할 경우 보상금은 가축 평가액의 80%가 지급됐다.

이런 가운데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에서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40%를 추가 감액했었다. 하지만 7월 1일부터는 100%를 감액해 농가에 한 톨도 지급하지 않게 된다.

구제역 백신을 접종했어도 보상금이 감액되는 경우도 신설됐다. ▲소독 설비 또는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축산관계 시설 출입차량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축산 관계 시설 출입차량에 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지 않거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한 경우 ▲축산 관계 시설 출입차량 관련 가축 방역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등이다.

가축평가액의 20%를 추가로 감액해 발생농가의 경우 보상금은 가축평가액의 60%가 된다.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이 높아진다. 1회 위반 시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2회 위반 시 4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3회 위반 시 1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백신 접종 여부는 항체양성률을 검사해 확인한다.

소는 80%, 번식돼지와 염소는 60%, 비육돼지는 30%를 넘지 않은 경우 불이익 기준이 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구체화 행보 가속

김영록 전남도지사, 여수 찾아 콘텐츠 점점 심포지엄 추진

전남도가 섬·해양 관광자원을 중심으로 서남해안 권역을 국가 발전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행보를 가속하고 있다. 도지사는 직접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조성을 위한 전남지역 현장 곳곳을 둘러보는 광복 행보에 나섰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사업이라는 당위성을 확신하기 위한 '남해안 관광벨트 심포지엄'도 추진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난 22일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조성에 필요한 관광 콘텐츠를 점검하기 위해 여수를 찾았다. 이날 김지사는 관광도시로 성장한 여수에서 추진되고 있는 관광 관련 사업 현황, 2025년 완공

예정인 여수 화태-백야 연결도로, 2020년 4월 완공 예정인 고흥과 여수를 잇는 화양-적금 간 연결도로 공사 현장을 둘러봤다. 여수시는 올해부터 2023년까지 327억원을 들여 메모리얼가든, 테마영상전시관, 선소체험마을, 벽스타마공원 등을 조성하는 '여수 선소유적 거북선 테마 공원'을 조성 중이다. 선소는 거북선이 건조된 역사적인 장소로, 국가 사적 제392호로 지정된 곳이다. 진남관 인근 '전라좌수영 동헌 복원사업', '방답진성'의 문화재 지정과 복원사업, 사적 제523호로 지정된 '석보' 정비사업 등도 추진 중이다. 김 지사는 이들 사업

계획을 보고받고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김 지사는 이어 올해 1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선정된 국도77호선 단절 구간 여수 화태-백야 연결도로 조성 예정지와 현재 공사 중인 화양-적금 연도교 현장을 방문했다. 여수 화태-백야 구간은 총 연장 11.4km로 5277억원을 들여 여수 화태도-월호도-개도-제도-백야도 등 5개 섬을 연결하는 도로다. 해상교량 4개소가 설치된다. 6월까지 사업적정성 검토를 마치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12월까지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해 2020년 초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인 턴키 공사로 발주해 2025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대한테니스협회, 국내 최초 테니스장 여수 거문도서 현판식

여수시 거문도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테니스장으로 공인됐다. 대한테니스협회와 전남테니스협회, 여수시는 지난 22일 거문도 삼산면 해밀턴 테니스장에서 최초 테니스 부지에 대한 협회 인증 현판식과 기념 식사를 했다. 대한테니스협회 등은 테니스 역사를 기리기 위해 행사를 열었다.

현판식에는 대한테니스협회 박용운 회장을 비롯해 전남테니스협회 전조일 회장, 여수시체육회 류재복 상임부회장, 여수시테니스협회 박창석 회장, 주민 등이 참석했다.

해밀턴 테니스장은 1885년 영국군 동양 함대가 거문도에 주둔했을 때 영국군이 우리나라 땅에 만든 국내 최초의 테니스 코트다. 대한테니스협회는 "당시 영국군이 바닷가에 만든 코트 모습이 사진으로 남아 있다"며 "그 유산이 지금도 이어져 주민



지난 22일 거문도 삼산면 해밀턴 테니스장에서 최초 테니스 부지에 대한 대한테니스협회 인증 현판식이 진행됐다. 왼쪽부터 대한테니스협회 박용운 회장, 전남테니스협회 전조일 회장, 거문도테니스클럽 김상호 회장, 여수시테니스협회 박창석 회장.

1400명인 섬에 복식 코트 6면이 있을 정도"라고 덧붙였다. 삼산면사무소 뒷산 중턱에는 '테니스 전래지'임을 기념하는 해

〈전남도 체육회 제공〉

밀턴 코트도 있다. 이는 영국군이 거문도를 '포트 해밀턴'이라고 부른 것에서 유래했다. /김한영 기자 young@

광주일보 유제관 부국장

이달의 편집상 2개 부문 수상



종합부문



문화·스포츠 부문

유제관〈사진〉
광주일보 편집부 국장이 한국편집기자협회 '이달의 편집상' 2개 부문을 동시에 수상했다.



한국편집기자협회(회장 김선호)는 유 부국장의 '못 밝힌 진실-못 끊은 왜곡'〈2019년 5월17일 1면〉과 '2강 in-우승만 남았다'〈2019년 6월13일 1면〉가 제213회 '이달의 편집상'에서 각각 종합·문화스포츠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한 명이 '이달의 편집상' 두 부문을 동시에 수상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유 부국장은 지난 2016년 '광주는 임을 부르고 싶다'로 '한국편집상 최우수상'에 선정되는 등 한국편집상을 세 차례 수상했으며, '이달의 편집상'도 다

수 수상했다. '이달의 편집상'은 전국 일간신문 52개사 회원 1000여 명의 투표를 통해 종합, 경제·사회, 문화·스포츠, 피쳐 등 4개 부문 각 1개 지면이 수상작으로 선정된다.

'못 밝힌 진실-못 끊은 왜곡'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39년이 지난 지금도 그 날의 진상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해 일부 보수세력의 왜곡과 망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제목에 반영했다. 또 민주열사 추모 행렬 사진을 1면에 함께 실어 역사·상징성을 살렸다.

'2강 in-우승만 남았다'는 U-20 월드컵에서 한국 대표팀 최초로 결승 진출을 이끈 이강인의 이름을 빌려 '2강' 그리고 'in'을 조합해 상황을 재치있게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상식은 2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中 산시성 대표단, 전남 방문… 우호 교류확대·관광홍보

전남도와 자매결연을 맺은 중국 산시성 대표단이 지속적인 우호교류 확대 강화 및 산시성의 관광 홍보를 위해 24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전남을 방문한다.

이번 산시성 대표단은 휘후이닝(駱惠寧) 당서기를 포함해 각 분야별 업무 협약에 참여할 인원 160여 명으로 꾸려져 역대 최대 규모다. 방문 규모만큼이나 자체적인 '산시성의 날' 행사를 갖는 등 3일간 다양한 행사를 치른다.

방문 첫 날인 24일에는 광주·전남이 공동조성한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소재 한국

전력공사를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한·중 합작 에너지 기업으로 운영 중인 발전소에 대한 공동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25일에는 휘후이닝 당서기가 김영록 전남지사와 우호교류 심화를 위한 고위급 회담을 갖고, 두 지역 간 실질적 협력 5개년 계획 합의안에 서명한다.

26일 산시성 대표단은 나주 소재 전남도 농업기술원을 방문해 농업박람회장을 참관하고, 에너지 자립형 스마트팜 시설도 시찰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삽니다

전국 임야/단독섬

지분물건환영.010-6834-7400

교 환 전문

빌딩/토지/임야등 모든 부동산

정확/신속처리.010-3605-500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실거주지파악가능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계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풍수 사주

수강생 수시 모집 및 상담

풍수와 사주(명리)를 한번에~
동전의 양면처럼 뿔 수 없는 관계인 풍수와 사주, 이 두가지를 동시에 해결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개 강 (6개월 과정)
•일 시 : 2019. 7. 2(화) 오후7시
•장 소 :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 : 산수오거리 → 무등산방향입구 우측2층)
•수강료 : 풍수 + 사주 15만원(매월)

공개강좌
•일 시 : 2019. 6. 25(화) 오후7시
•장 소 : 상동(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대 상 : 누구나 (선착순〇〇명)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천기비법 대 공개
•기강풍수 비법 교육
•분묘, 이장, 납골당 및 수목장 수맥파 중화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보
•사업(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사주 교육 및 감정(사주, 궁합, 택일 등)
•작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3146-6370 / 010-2246-1508

임 야 매 매

화순군 도곡면 신덕리
산 55, 55-1, 54번지
20,493㎡ 17억

담양군 대덕면 매산리
산95, 95-3
51,475㎡ 23억

010-8443-5165
개 인 직 거 래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완도군 약산면 득암리 청정바닷가 접 산 1377㎡ 분할가능 1억3천
•화순 남면 유마리 유마사 마을 1021㎡ 전망 좋음 4800만원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 추월산 가는 길 2268㎡ 1억5800
•영광 백수해안도로 칠산바다 전망 좋음 1130㎡ 1억2천

투자·매도·교환
•함평 순분면 산남리 전 8588㎡ 귀농생활적합 2억6500
•완도군 완도를 망서리 도로점 산 자연녹지 3306㎡ 교환가능 8천만원
•함평군 해보면 용천사 입구 땅 1537㎡ 식당 82㎡ 2억45천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대지 641㎡ 주택 있으나 주택신축적합 1억5백
•광산구 쌍암동 대형빌딩 중의 2층 25㎡ 과일점 전문점 시설완비 1억5천
•별장·나주시 다시면 회진리 영산강 부근 땅 450㎡ 건평 110㎡ 3억
•남구 월산동 월산아파트 부근 조용한 생활적합 664㎡ 2층주택 4억4천
•담양 금성면 추월산 가는 길 땅 808㎡ 커피숍·식당 적합 3억4천

상 가 건 물
•순천시 낙안면삼마을 땅 2180㎡ 팬션3동 317㎡ 교환가능 8억
•함평군 해보면 문장 땅 919㎡ 건평 1207㎡ 원룸 30. 지하공실 17억
•농성동 새 원룸건물 대지 343㎡ 건평 712㎡ 1층 가게는 공실 17억
•충장로 47가 땅 261㎡ 건물 1128㎡ 은행 11억 전세 1억8천 월 1000. 25억
•월산4동 주민센터부근 도로코너 땅 227㎡ 상가주택 357㎡ 매도 5억8천

특 급 물 건
•강진 성전면 상업지 등 4240㎡ 강진산단근거리 소형아파트 적합 19억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동 3647㎡ 약국용 건물과 교환가능 33억
•영광 염산면 바닷가 땅 3563㎡ 팬션2동·식당 건평 700㎡ 은행 3억 매도 6억5천
•무안군 운남면 바다인접 약 9400㎡ 전원주택·요양시설 적합 3억3천
•남평읍 드들강 모텔 땅 2741㎡ 건평 1748㎡ 요양시설 적합 17억
•나주시 다시면 광목간도로 4323㎡ 유통시설·창고 등 적합 6억
•신안군 암태면에서 7분거리 독립섬 56233㎡ 독립생활적합 3억6천
•담양군 무정면 땅 3850㎡ 별장 147㎡ 조경완벽 팬션좋은 7억2천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앞문앞